생명의 땅 전남
Full of Life, Jeonnam

2017. 10.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 글로벌 미래전략 과정 -

목 차

Ⅰ. 서론 ····· 1
1. 연수개요 ····· 1
2. 공식 방문기관 ····· 2
3. 주요 일정 ····· 3
3. 여행자 현황 ····· 3

Ⅱ. 농산물 고부가가치 분야 ····· 4
1. New South Wales(NSW) 주의 농업정책 방향 ····· 4
2. 방문기관 및 주요내용 ····· 5
3. 소감 및 시사점 ····· 6

Ⅲ. 해양레저산업 분야 ····· 7
1. 달링하버 재개발사례 ····· 7
2. 소감 및 시사점 ····· 9

Ⅳ. 관광문화 분야 ····· 11
1. 블루마운틴 관광 및 시사점 ····· 11
2. 하이드 파크, 세인트메리 대성당 ····· 12
3. 오페라하우스, 하버 브리지, 시드니항 크루즈 ····· 13
4. TOBRUK SHEEP STATION 목장 방문 ····· 14

Ⅴ. 연수 후기 ····· 15

글로벌 미래전략 국외 연수 결과

1 서 론

1 연수 개요

○ 목 적

-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한 전남도 발전전략(농산물고부가가치, 해양레저, 바이오헬스, 관광문화) 수립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 연수기간 : 2017. 9. 18. ~ 9. 23. (4박 6일)

○ 대상국가 : 호주(시드니)

- 일반현황

위 치	▸오세아니아(동경 113°9'-153°39', 남위 10°41'-43°39')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
면 적	▸768만km2(한반도의 약 35배 / 남한의 약 80배/미국 대륙과 크기가 비슷/유럽의 약 0.8배/ 영국의 약 32배) ▸전체 해안선의 길이는 36,735km 길이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단일 대륙으로써는 가장 작은 크기이다.
지리정보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장 높은 지대는 New South Wales 지역에 위치한 Kosciuszko 산이며, 가장 지대가 낮은 곳은 남 오스트레일리아에 위치한 dry bed of Lake Eyre라는 곳이다. 해수면보다 15미터 아래에 위치해 있다. ▸본대륙과 타스마니아는 수 천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둘러 쌓여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약 20%정도는 사막이며, 가장 낮은 강우량을 기록한다.
기 후	▸남부(온대), 북부 및 서부(열대), 내륙(대륙성) ▸남극을 제외하면 가장 건조한 대륙이기도 하다.
행정구역	▸6개 주 및 2개 자치지구
수도	▸캔버라
인구	▸2,323만 2,413명(2017년 7월)
사법 체재	▸영국식 사법 체제

건국일	1901년 1월 26일
정부형태	▸호주는 1901년 6개 영국 식민지(현재 주)가 합의하여 창설한 연방제 국가로서, 권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6개 주 및 2개 자치지구) 에 분산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헌법에 열거된 권한만을 보유하며, 잔여 권한(residual power)은 주정부에 귀속된다. 조세, 경쟁정책, 노동법 등 연방과 주정부 간 권한이 중첩되는 분야의 경우, 변화나 개혁을 위해서는 연방과 주정부간 협상과 타협이 필요하다.

- 시드니 일반현황

위 치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
면 적	▸12144.6
행정관청	▸456 Kent Street Sydney NSW 2000
기후	▸연간 평균기온은 17.6℃, 가장 더운 달이 21.9℃, 가장 추운 달이 12.3℃로 연교차가 적다. 연평균강수량은 1,205mm이며,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르다.

2 공식 방문기관

방문일자	공식 방문기관
9.19.(화)	- GRIMA VEGETABLE PARK 방문 * NSW 우수 모범 농장, 최신 정화시설, 시드니 근교 최대 규모의 농장으로 주말 마켓으로 납품하는 가족단위 농장
9.20.(수)	- 시드니 달링하버 ! * 해양관광개발단지 달링하버 ! 크루즈 부두, 해양수족관, 제트보트, 서핑 등의 해양 레저 개발단지 세계 3대 미항으로 꼽히는 시드니항은 1980년대 이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다가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1984년 달링하버항만청법을 통해 재개발을 진행했다.
9.21.(목)	- 호주의 전통 농장 체험 “TOBRUK SHEEP STATION"

3 주요 일정

방문일자	주 요 일 정
9.18(월)	❑ 교육원 출발(광주 → 인천→시드니)
9.19.(화)	❑ 호주 시드니도착 ❑ **(공식방문 1) GRIMA VEGETABLE PARK** ❑ 블루마운틴 견학
9.20.(수)	❑ **(공식방문 2) 세계의 마리나 시드니 달링하버 !** ❑ 호주 최고의 NSW 미술관(관람) ❑ 하이드 파크 방문 ❑ 퀸 빅토리아 빌딩(QVB) 방문 ❑ 타운홀(Town Hall) 관광 ❑ 시드니 타워
9.21(목)	❑**(공식방문 3)전통 농장 체험 "TOBRUK SHEEP STATION"** ❑시드니 동부해안 관광
9.22(금)	❑ 오페라하우스 ❑ 맥콰리포인트 ❑ 하버브릿지 ❑ 크루즈 선상 뷔페식 ❑ "오페라하우스내부 가이드 투어" ❑ 시드니 수족관
9.23.(토)	❑ 인천 국제공항 도착

4 여행자 현황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비고
1	전라남도	전문경력관나군	김수곤	
2	전라남도	행정6	김민준	
3	전라남도	행정7	김태경	
4	전라남도	보건7	박시연	
5	전라남도	행정6	정병현	
6	전라남도	행정6	형광현	
7	광양시	행정7	정한성	

8	고흥군	행정8	김기영	
9	고흥군	세무6	홍대원	
10	보성군	행정6	정인숙	
11	화순군	행정7	서재일	
12	영광군	행정7	소재식	
13	담양군	행정6	나종수	

2 농수산물 고부가가치 분야

1 New South Wales(NSW) 주의 농업정책 방향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 분담

- 연합정부의 역할 : 이민, 국방, 검역, 세금
- 주 정부의 역할 : 농림, 보건, 법, 경찰, 교통, 교육
- 국가적인 정책 : 농업, 보건, 교육, 물관리

○ 호주 농업의 목표

- 강력한 수출정책 : 관세는 없거나 1~2% 수준임
- 농민에게 무지원정책
- 국제적 경쟁력 확보
- 고효율성
- 기계화율의 고도화
- 개인당 노동생산성의 극대화
- 신기술개발로 농업혁신

○ NSW주 농업적 위치

구 분	비 율
호주 농업수출 중 NWS주의 비중	43.0
NSW주 수출 중 농업부문 비중	18.4
NSW주의 농업비중	3.0

2 방문기관 및 주요내용

○ 방문기관 : GRIMA VEGETABLE PARK

< 기본현황 >

- 재배면적 : 30ha
- 재배작목 : 브로콜리, 시금치, 샐러드용 어린 야채류 중심
- 인력현황 : 10명(가족 2, 비정규직 인력 8)

*** NSW 우수 모범 농장, 최신 정화시설, 시드니 근교 최대 규모의 농장으로 주말 마켓으로 납품하는 가족단위 농장**

○ 주요내용

- 이 농장은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 3대째 이어져 현재는 형제가 운영 중이며, 인근 레스토랑 및 호텔에 납품을 하고 있고, 생산되는 채소들은 2~3개월이면 재배가 되는 샐러드용 채소를 재배함.

- 재배되는 채소는 30여종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재배를 하며, 호텔이나 레스토랑 등에서 원하는 종류의 채소를 생산, 농장에서 직접 납품까지 진행

- 어린 채소를 소량 생산함으로 기계로 수확하는 것은 어렵고, 농장은 형제와 비정규직 8명 정도로 운영함. 호주는 인건비가 높아서 호주 내에서 인력을 채용하기는 어려워 아시아 등에서 대체 인력을 동원해서 수확함. 높은 인건비로 잡초 제거도 어려워 어린 채소, 샐러드용 채소를 재배하기 시작함. 어린 채소는 생산시기가 짧아서 일년에 3~4회 재배가 가능하도 함.

- 호주 청년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업을 선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가업으로 하는 농장을 제외하고는 이 일을 하려고 쉽게 뛰어들지 않는 실정임

- 3대째 농장을 경영하면서 기존에 확보된 유통망과 농업 관련 컨퍼런

스나 포럼 등에 참석해서 직접 농작물을 홍보하면서 유통망을 넓힘.

- 농장을 경영하는데 정부의 지원은 없음.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농장에 접목된 시스템이나 계획은 없음. 연간 매출액은 30억원 정도이며, 종자는 종자개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고 있음.

3 소감 및 시사점

○ 냉장탑차, 냉장저장실(21,000천원)이 설치되어 20분내외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하처에도 농산물의 신선도를 높이기 위하여 활용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음.

○ 농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한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농업인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음.

○ 외국농산물이 수입이 된다고 해도 채소류는 유통기간이 짧기에 경쟁력이 있고 자연환경이 좋은 호주에서 생산한 채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농업을 한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음.

○ 소비자 중심의 다품종 소량의 맞춤형 채소 생산 방식으로 연 3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농장 대표의 노력이 대단해 보임

- 3대째 내려오는 농장을 시대적 흐름과 수요에 맞춰 생산 방식의 변화를 꾀하면서 성장·발전 시켜옴

○ 호주를 대표하는 농장은 아니었으나, 전남에 맞는 농업성장에 필요한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또한 IT강국인 우리나라도 농업에 IT를 접목한다면 농업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희망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함.

- 소비자 중심의 다품종 소량 생산 및 유통
- IT 접목의 '스마트 팜' 적용 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종 개량 등 R&D 연구 및 보급

4 GRIMA VEGETABLE FARM 방문 사진



<출하전 농산물>



<농장주와 질의응답 1>



<농장주와 질의응답 2>



<채소농장 전경>

3 해양레저산업 분야

1 달링하버 재개발사례

○ 달링하버는 쇠퇴한 항구를 새로운 문화, 레저, 비즈니스 콤플렉스로 탈바꿈시킨 성공사례로 ‘도심지 재개발의 기적’으로 전 세계에 회자됨.

○ 달링하버는 주정부(NSW) 주도로 3단계 개발사업을 통해 순

차적으로 개발 및 발전

- (1단계) 1788년부터 달링하버로 이름이 명명되기 전인 1825년
- (2단계) 1826년부터 달링하버가 산업과 항만의 기능을 유지하던 1983년
- (3단계) 수변개발과 연계한 도시재개발을 추진하여 세계적 관광지로 각광을 받은 1984년부터 2000년

○ 달링하버는 1950년대 이후 전철 교통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1970년대 시설의 노후화와 기능 쇠퇴로 인하여 물류중심지 기능 상실되어 재개발 추진

○ 1984년 NSW(뉴사우스웨일스) 정부는 달링하버와 시드니 주민을 위한 항만연안으로 공공성 접근을 향상시키기로 하고 축제와 모임의 장소로 재창조함.

○ 전시센터, 컨벤션센터, 쇼핑센터, 수족관, 차이나가든, 국제 해양박물관을 건설하여 건설과 관광, 디자인에 대하여 수 많은 상을 받음.

○ 달링하버는 유등축제, 레즈비언 행사, 새해맞이 불꽃축제, 재즈 페스티벌 등 항만을 활용한 독자적인 이벤트 운영으로 전 세계 관광객 유치

- 최근 3년 전부터 연간 26백만명의 관광객 방문 유지

○ 시드니항 내에 마리나 시설, 요트 및 유람선 등 레저시설이 갖추어져 있음. 시드니항 및 시드니 해안가 곳곳에 요트가 정박해 있을 정도로 요트를 이용한 레저가 활성화 되어 있음. 수질 정화 및 환경 관리를 잘 한 탓에 해양레저를 즐기기에 최적의 공간이었고, 이것이 해양관광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음

2 소감 및 시사점

○ 호주는 국민 스무명 중 1명이 레저보트를 소유하고 있는 세계 5위의 요트 생산국으로 호주의 해양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정부의 스마트한 정책드라이브와 국민의 노력이 컸음. 21세기 신성장 동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한국이 벤치마킹하기에 매우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 항만을 단순히 항만의 개념에서 벗어나 문화, 업무, 사업, 위락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콤플렉스 공간**으로 개발

- 해양박물관, 수족관, 마리나항만, 식당가, 쇼핑센터와 숙박시설 배치

⇒ **도내 시군에서 항만 개발 시 달링하버 재개발사업을 참고하여 기본적인 항만기능에 문화, 위락시설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방안 검토**
예) 여수의 웅천마리나항, 목포 신항만 및 진도항 개발 시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사업추진 곤란, 항만개발에 **과감한 국비 지원**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개발 활성화 도모

○ 기본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은 **인근 자치단체의 문화축제와 체험행사 등 다양한 관광상품과 연계**를 통한 전략적 마케팅 실시
예) 여수의 밤바다 및 다양한 위락시설과 순천의 국가정원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 배가

○ 천혜의 자연환경, 특이한 생물들로 다양한 관광 아이템 활용

- 블루마운틴, 코알라, 캥거루, 유칼립투스, 양 등을 다양한 관광상품 및

판매 상품으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소득 증대 도모

⇒ **도내 미 발굴된 자연관광지 개발 및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상품화 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실시(섬 가꾸기 사업, 양봉 상품 개발)**

○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이 최대한 조화를 이루는 개발계획 수립

⇒ **개발 계획 수립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 제일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개발 계획 수립(웅천 마리나 및 진도항 개발)**

○ 조화롭게 개발된 도시(지역)에 맞는 스토리텔링형 관광축제 및 관광 아이템 개발

⇒ **시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관광상품을 개발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 축제 및 상품 개발(명량대첩축제 또는 남도음식대축제)**

3 현장사진









4 관광문화 분야

1 블루마운틴 관광 및 시사점

○ 블루마운틴

-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악 국립공원
- 유칼리나무로 인해 멀리서 특유의 푸른 빛과 가파른 계곡, 세자매봉 등 기암 등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200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됨
- 수백년 된 고목 등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한 상태에서 다양한 자연속 데크길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관광상품으로 활용
- 과거 석탄 등 광석채취용 철로 및 터널 등을 그대로 보존하여 과거 산업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시 사 점

- 천혜의 불루마운틴 자연경관 및 과거산업 현장을 최대한 보존한 상태에서 관광상품 개발·활용

⇒ **단순히 개발만능주의 접근보다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관광상품 개발계획 수립 필요**

○ 관련사진



블루마운틴 전경



블루마운틴 전경

2 하이드 파크, 세인트메리 대성당

○ 하이드 파크

- 런던 하이드 파크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공원
- 19세기에 들어서면서 크리켓 시합을 개최하는 등 스포크와 레크리에이션의 장소로 자리매김함
- 하이드파크는 시드니의 대표적 도심 속의 휴식공간으로,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언제든 편하게 쉬는 모습이 인상적

○ 세인트메리 대성당

- 세인트메리 대성당은 1865년 처음 세워진 성당이나 화재로 소실되고 1928년 고딕 양식을 기초로 재설계하여 완공됨

○ 시 사 점

- 빌딩 숲 도심의 한가운데에 하이드파크 및 세인트메리 대성당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자연과 도시가 하나로 어우러지게 함

⇒ **도심개발 시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과 보존이 공전하는 자연친화적 휴식공간 배치 필요**

○ 관련사진



하이드 파크



세인트메리 대성당

3 오페라 하우스, 하버 브리지, 시드니항 크루즈

○ 오페라 하우스

- 1973년 준공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건축 형태와 구조적 설계에서 창의력과 혁신을 결합한 근대 최고의 건축물임
- 오페라하우스는 오렌지를 자른 형상에 착안해 만들어진 것으로 최초 1957년 공모전 당선이후 준공까지 수차례의 설계변경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20세기 최고의 건축 걸작품이라 평가됨
- 오페라하우스의 보존을 위해 건축 기념물로서의 역할과 첨단기술을 사용한 공연 센터로서의 역할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건물의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유지보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하버 브리지&크루즈

- 이러한 오페라하우스를 보기위한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한 시드니 크루즈 관광까지 연계 발전, 세계 최대의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 함
- 하버 브리지는 1932년 시드니 도심과 북쪽 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이자 철도, 보행자 도로로 개통하였으며, 세계 경제대공황 때 다리 건설사업으로 국가 경제를 이끈 역사적 산물임

○ 시 사 점

-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축물 하나를 만들어도 최고를 위해 노력하여 1세기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예술작품을 만드는 노력을 높이 평가함.

○ 관련사진

	
오페라하우스	하버브리지

④ TOBRUK SHEEP STATION 목장 방문

<TOBRUK SHEEP STATION>
- 빌리티&뎀퍼빵 : 호주전통농장의 고유음식인 뎀퍼빵과 빌리티 체험
- AUSSIE BBQ LUNCH : 호주 농장 전통의 바비큐 런치 체험
- 체험프로그램 : 호주의 대표산업중 하나인 양털깎이를 이용한 '양털깎이쇼'와 '양몰이쇼'를 관람, 넓은 목장 안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부메랑 체험 등 호주초기 농장 이주민들의 농경생활을 체험

○ 시드니에서 1시간 30분정도의 거리에 위치에 있는 전통 양목장으로 농장 입구부터 광활한 목초지에 군데군데 양들이 그룹으로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 호주의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었음.

○ 농장은 호주 전통농장으로 양을 이용한 뎀퍼빵을 만드는 과정, 양털을 깎는 모습, 양몰이개가 양들을 양몰이하는 모습을 관람하고, 농장주의 부메랑 시범에 따라 직접 체험을 할 수 있었음.

○ 시 사 점

- 무엇이든 특정산업을 발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전통방식으로는 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도전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느낌.

○ 관련 사진



탑룩농장


양털깎기


부메랑체험

5 연수 후기

○ GRIMA VEGETABLI PARK는 다품종 대량생산이 아닌 다품종 소량생산하여 유명호텔, 레스토랑에 직접 납품하고 농장주가 직접 호텔이나 세미나에 가서 마케팅을 하여 연 3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음. 무엇보다 3대(조부, 부, 자)에 걸쳐서 수십년 간 가족단위로 농장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음. 우리지역도 도시 인근 로컬푸드 등과 연계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농산물을 고부가가치화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봄

○ TOBRUK SHEEP STATION(양목장)은 1년 내내 국내외 관광객이 전통빵 제조과정, 양몰이쇼, 양털깎기쇼를 보고, 부메랑체험을 하려고 찾아오고 있었음. 우리지역도 외국인이나, 도시 어린이들이 관심을 갖고 체험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잘 엮어서 농어촌 체험관광과 연계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세계 3대 미항중 하나인 시드니항에 건축된 오페라하우스를 보면서 우리 지역에도 지역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아름답고 독창적인 건축물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되는 부대시설도 갖춰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